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광고주들이 페이스북(FACEBOOK)의 플랫폼을 이용해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조사할 것을 촉구**

*페이스북(Facebook)의 광고 플랫폼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통해 사용자의 세밀한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인종, 피부색, 출생국, 종교, 가족 관계, 성별, 장애 등의 데이터를 사용해  
광고 노출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광고주들이 페이스북(Facebook, Inc.)의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  
보호 계층을 차별한다는 의혹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북(Facebook)의 광고주들에 대한 의혹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며, 뉴욕이 지지하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저는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여 뉴욕 주민들이  
그들 자신과 가족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 뒤에서 이렇게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완전하게 책임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  
이처럼 매우 심각한 의혹을 완벽하게 밝혀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주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뉴욕 주민에게 공정함과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의 **Linda A. Laceywell** 관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모든 뉴욕 주민이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는 페이스북(Facebook)의 광고주들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조사하여 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금융 서비스가 뉴욕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모든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이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Facebook)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주들은 우편번호 정보를 사용해 광고 설정을 변경하거나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인종, 피부색, 출생국, 종교, 가족 관계, 성별, 장애 등 분류에 따라 접근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Facebook)은 자사의 광고 플랫폼이 하우징과 하우징 관련 광고주들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광고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도구와 더불어, 페이스북(Facebook)은 또한 머신러닝과 예측 분석을 활용해 사용자를 분류하고 각 사용자의 해당 광고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여 보호 대상인 사용자의 분류에 따라 설정된 그루핑을 재설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소비자 위원회(Consumer of Affairs Committee)의 위원장인 Kevin Thoma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우리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의 개인 정보가 기만적이고 차별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금융 서비스부(DFS)가 이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계속 촉진시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원 인터넷 및 기술 소위원회(Internet and Technology Subcommittee)의 위원장인 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및 기술 위원회(Committee on Internet and Technology)의 위원장으로서,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정보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이번 분기 고객 프라이버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모든 뉴욕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첫걸음을 내디디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하원 소비자 위원회(Consumer Affairs Committee)의 위원장인 Michael DenDek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별은 어떠한 형태이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의 선두주자로서 페이스북(Facebook)만의 독특한 지위는 페이스북의 광고 행위에서 차별의 결과가 더욱 포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현재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Cuomo 주지사의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 인터넷 및 기술 소위원회(Internet and Technology Subcommittee)의 Clyde Vane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가 뉴욕 주민의 데이터와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많은 경우, 정보와 데이터가 소홀하게 관리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중요한 조치를 상징합니다."

뉴욕의 소비자 보호 이니셔티브

**Cuomo** 주지사 행정부의 지휘 아래, 뉴욕주는 법적 규제를 실시하여 뉴욕 주 전역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주지사는 3월 사망한 채무자 및 그의 유족에 대한 채무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심 업체들이 기술을 활용해 친척들에게 지불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 개정에 따라 추심 업체는 더 이상 유족의 채무 상환 의무에 대한 어떠한 허위 진술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또한 인기 웹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검토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교육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페이스북(Facebook)이 비밀리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후 이루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월 뉴욕 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그리고 기타 주정부 기관에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 검토를 지시하고 연방정부에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월, 주지사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및 뉴욕주 조세재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터보택스(TurboTax)와 에이치 앤 알 블록(H&R Block)을 비롯한 기타 주요 세금 정산 대행업체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업체들이 구글(Google) 광고 및 웹사이트의 기능을 활용하여,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만적으로 추가 세금 보고 선택지를 숨겼다는 의혹이 알려진 이후의 일입니다.

1월, 주지사는 수신자가 전화를 받거나 거부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수신자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된 애플(Apple)의 페이스타임(FaceTime) 앱 버그에 관하여 뉴욕 주민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소비자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Letitia James** 법무장관과 협력하여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소비자 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에 연락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2020 제정 예산(Enacted Budget)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업체에 면허를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보호조치에 따라, 대부 업체들은 기타 중요한 대출 상품에 대해 법과 규제에 따른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어떤 학자금 대출 담당자도 대출자를 오도하거나 어떠한 약탈 행위 및 관행에 가담하거나, 대출금 지불을 악용하거나, 신용 평가 기관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출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에퀴팩스(Equifax)와 같은 신용 평가 기관에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해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자,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뉴욕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금융 서비스부(DFS)

등록 및 뉴욕이 미국 최초로 도입한 사이버 보안 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최종 규제안을 시행했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이 특정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금융 서비스부(DFS) 감독관은 규제에 따라 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이 뉴욕의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 및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거부, 일시 중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